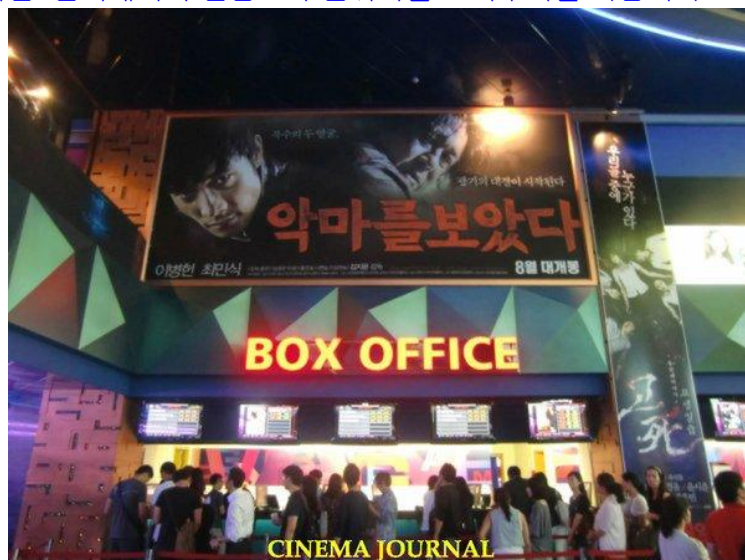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김 지운 감독 & 배우 이 병헌 「악마를 보았다」
韓国封切初日鑑賞レポート
한국 개봉 첫날 감상 리포트

先週、猛暑と台風の最中に ソウルに滞在していた。

キム・ジウン監督の最新作であるサイコスリラー「悪魔を見た」を韓国公開初日に観た。主演はその作品でいつも重要な存在であるイ・ビョンホンと、韓国 演技界のカリスマ チェ・ミンシク。日本公開は未発表のため、劇場でのスナッフと感想だけだが、雰囲気だけでも感じ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

지난 주는 무더위에 이어 태풍이 상륙한 서울에서 바쁜 취재 일정으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김 지운 감독의 최신작인 사이코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가 개봉일을 맞이하였다. 주연은 배우 이병헌과 한국 영화계의 카리스마적인 존재인 배우 최 민식이 맡았으며, 일본 개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관심도와 분위기를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ソウル江南地区にあるシネマコンプレックスのチケット売り場)
 (서울 강남에 있는 메가박스 매표소)



(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柱という柱に飾られた、巨大ポスター)
 (쇼핑 몰의 기둥마다 붙여진 거대한 포스터)

<恐ろしくも美しい映像>

<무섭고도 아름다운 영상>

国家情報院警護要員である主人公は、フィアンセが冬の夜道で連続強姦殺人魔に惨殺された後、自らも残忍な復讐を繰り返しながら犯人を追い詰めていく。

バキバキと音のする激しい暴力、残忍な表情、ドクドク流れて飛び散る鮮血、リアルでグロテスクな絵図が、息継ぎもさせないテンポで次々と襲ってきた。観ているだけの自分も恐怖と激痛を感じて、たびたび顔を歪め、身をひきつらせてしまった。それなのに、なぜか後味が悪くなかった。鮮やかで美しい光と映像が脳裏に焼きつき、研ぎ澄まされた効果音とスタイリッシュな音楽が耳の奥に残った。

국정원 경호요원인 수현(이 병현)은 약혼녀 주연이 연쇄 살인마 경찰(최민식)에게 살해 당함을 알고, 복수를 결심하고 범인을 추적해 간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 격렬한 폭력, 잔인한 표정, 산란하게 흩어지는 선혈 등 그로테스크한 영상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전개되었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고통스러워움츠리고 영화 보는 내내 얼굴을 찡그린 채 어깨를 펴수가 없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몇 일이 흐른 지금은 아름답고 선명한 빛과 영상. 그리고 모르는 사이 뇌 속에 묻혀버린 완벽하게 다듬어진 효과음과 세련된 음악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이제야 영화같이 느껴진다.

特に俳優達の演技は圧巻だ。チェ・ミンシクは、視線一つだけでも、腕を下から上へ動かすだけでも、カリスマ性とエネルギーを発散する。イ・ビョンホンは、フィアンセとの甘いやりとりから一転、突然の悲しみから怒りを爆発させ、自分も残忍な悪魔に変身して執拗な復讐を繰り返すが、そのうち疲弊しきって無念無想になっていく、という過程の感情の変化を、繊細な表情演技で切ないほどに見せてくれた。2人の目元や頬の筋肉の仔細な動きまでを余すことなく追ったクローズアップが美しかった。数日を経た今もフラッシュバックで蘇る。

특히 배우들의 연기는 압권이었다. 최 민식(경찰역)은 눈빛 하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카리스마와 악마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 병현(수현 역)은 사랑하는 약혼녀를 둔 남자의 애뜻한 분위기에서 약혼녀를 잃은 후 슬픔과 분노를 뛰어넘어 악마로 변신 해 집요한 복수를 반복하는 어려운 역할을 소화해냈다. 수현이 복수에 불타 피폐 해지고 짜들어 가다가 공허 해지고 그리고 결국 무념무상에 이르는 감정변화를 이 병현씨는 섬세한 표정 연기로 보여주었다. 둘의 눈가의 작은 근육의 움직임 하나까지 잡아내어 클로즈업한 영상은 아름답기까지 했고, 몇 일 지난 지금도 눈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監督と俳優に惚れこんでいるという弱みを十分に引き算したとしても、俳優達の情熱的かつ繊細な表情演技、卓越した映像音声技術、そして今回は、感情とドラマ性を重視した監督の演出、すべてを兼ね備えた完成度の高い作品であると言える。

감독과 배우의 열렬한 팬이기에 작품 평가에 공정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배우들의 정열적이고 섬세한 표정 연기, 탁월한 영상, 음향 그리고 감정표현을 중요시 한 감독의 연출력 등 모든 것을 견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다.

キム・ジウン監督作品としては、シナリオ作者が違う所為なのか、めずらしく何人も女優が登場している。フィアンセとの甘い時間を過ごすイ・ビョンホン、のようなシーンを筆者は密かに期待したりもしていたのだが、そんな物理的な絡みのシーンは頑固に無かった。ここ数年の作品で毎回披露されたイ・ビョンホン の鋭く鍛えられた裸身も、分厚いダウンジャケットで首まですっかり覆われている。怪我をして包帯が巻かれた肩が数秒間見られるだけだが、冷たい怒りと悲しみが浮かび上がり、変化していく表情だけで十分に魅せられる。

김 지운 감독의 작품으로서는 본인의 시나리오가 아닌 작품이라는 점, 특이하게 여배우가 몇 명 등장한다는 점. 수현과 약혼녀 지연과의 애뜻하고 달콤한 장면을 더 많이 기대했었지만 그 기대는 완전하게 배신당했고, 최근 이 병현씨의 작품에 늘 등장하는 아름답게 단련된 몸매조차 볼 수 없게 늘 목까지 올라오는 두껍고 무거워 보이는 재킷을 걸치고 있다. 붕대에 감겨진 어깨만으로 만족하면서 차가운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 수현의 얼굴과 표정에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매료되었다.

シーン設定も盛りだくさんだ。国家情報院らしいハイテクと、素手で刃物というローテク、きらめく都会とさびれた地方、明るく幸せな笑声と恐怖におののく叫び声、にコントラストが効いている。こだわりのセットや小道具の美術は見応えがある。また、壮絶な暴力シーンの隙間の台詞に含まれるユーモアに、言葉のわかる地元の観客からは笑い声があがっていた。ただ、エンディングには少し考えさせられるところがあったので、いつか監督にその意図を確かめてみたい。

장면の 설정도 다채롭다, 국정원 요원이라는 신분이기에 접할 수 있는 하이테크, 맨손에 칼 자루 하나라는 로테크, 현란한 도시와 상반되는 시골, 환하고 따뜻한 행복과 불안과 공포에 떠는 괴성 등 대비효과를 볼 수 있다. 작은 소도구에서부터 미술품, 셋트 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다. 강력한 폭력 씬 사이사이 끼어있는 유머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같이 웃을 수 없기에 그 순간만큼은 한국인이 아니 것이 서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가 끝나면 한 숨도 나오질 않는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영화 같지 않은 결말에 언젠가 감독에게 꼭 그 의도를 확인 해 보고 싶다.



(劇場で配布していたパンフレット)
(극장에서 배포하고 있던 팸플렛)

<映像物等級論議>
<영상물 등급 논의>

その暴力性残虐性ゆえ、韓国の映像物等級委員会からは、2度にわたって実質国内では上映不可にあたる「制限上映可」の判定が下り、監督をはじめとする製作チームが 直前に限界まで編集し直した結果、やっと3度目で「青少年観覧不可」等級(日本の例だと18禁程度)で公開されることに決着した。試写会 も記者懇談会 もぎりぎりの前日となり、広報もままならぬまま当初の予定から一日遅れの8月12日に封切されたが、観客動員は上位を記録しており、期待の高さを誇示している。

폭력성과 잔학성으로 한국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2 번의 심의를 걸쳐 실제로 국내 상영 불가라고 할 수 있는 [제한 상영 가능]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감독과 제작팀들이 편집에 편집을 걸쳐 3 번째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일본의 18 세 금지) 판정을 받아서 개봉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 시사화, 일반 시사화도 연기 되는 해프닝으로 영화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영화 개봉 일도 당 초 예정일로부터 하루 지연된 8 월 12 일로 잡혔지만, 관객동원은 기대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過去の国内外の映画にも同様なシーンがあったのに、異例の厳しさでこの作品だけにあびせられた削除要請に 監督はこの国で映画監督を続けていくべき だろうか？ というところまで苦悩したということだ。二人の俳優の演技がすばらしくあまりにもリアルで迫力があつたという褒め言葉だと思わなければ、到底耐えられない出来事だったそうで、気のせいとか少し疲れて見える監督の表情を韓国記事などで目にして、ファンとしてはとても心が痛い。

キム・ジウン監督作品では恒例である、何種類かの他のエンディングと共に 削除シーンも眠らせることなく海

外の映画祭やDVDで公開されるのだろうか？

い제까지 국/내외 영화에도 동일한 장면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판정에 의한 삭제 요구에 한국에서 계속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했다고 한다.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나도 리얼하고 박력 있어서 더 잔혹하게 느껴지기에 그럴것지 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본인 스스로를 위안했다고 하는 초체한 감독을 보면서 팬으로서 마음이 아팠다. 김 지운 감독만의 독특한 설정인 여러 종류의 엔딩과 삭제된 필름이 어두운 창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영화제와 DVD 으로 공개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日本での公開は?>

<일본에서의 공개는?>

キム・ジウン監督の前作である『グッド・バッド・ウィアード』は、日本公開までに丸一年も待たされてしまった悪夢が蘇る。今回はどうなるのだろうか？ この映画の真の価値を正しく理解する日本の配給会社が引き受け、目の肥えた映画鑑賞者、芸術性作品性を重視するマニア層をターゲットに、効果的でふさわしい広報宣伝活動がされることを心から祈る。イ・ビョンホンが日本のマーケットで長年背負わされてきた「韓流スター」という汚名(?)を返上して、真に映画俳優として、監督の名前と共に、より広い層の観客に認知される作品となるに違いない。

김 지운 감독의 전작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일본에서 개봉되기까지 일년이나 걸렸던 악몽이 떠 오른다. 이 번 작품은 어떨까?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배급사가 인수해서, 눈이 높아진 관객층, 예술 작품을 선호하는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선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배우 이 병헌씨가 한류 스타라는 악명(?)에서 보다 넓은 층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영화 배우로서 거듭나길 바란다. 김 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억에 남을 작품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取材/文:祥)

(사치)

タイトル 타이틀	『悪魔を見た』 “I SAW THE DEVIL” 「악마를 보았다」“I SAW THE DEVIL”
監督 감독 Director	キム・ジウン 김·지운 Kim Jee-Woon
主演 주연 Cast	イ・ビョンホン、チェ・ミンシク 이 병헌/최 민식 Lee Byung-Hun, Choi Min-Sik
ジャンル 장르 category	スリラー 스릴러 thriller
韓国封切り 한국 개봉 Release in South Korea	2010年8月12日 (日本公開は未発表) 2010년 8월 12일 (일본 공개는 미발표) August 12, 2010 (Japan Release not confirmed yet)
韓国配給 한국 배급 Distributor in South Korea	SHOWBOX (株) MEDIAPLEX CO. SHOWBOX(주) MEDIAPLEX CO.

本誌「シネマジャーナル」及びバックナンバーの問い合わせ: order@cinemajournal.net

このHPIに関するご意見など: info@cinemajournal.net

このサイトの画像・記事等の無断転載・無断使用はご遠慮下さい。

이 사이트의 화상·기사등의 무단 전재·무단 사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

掲載画像・元写真の使用を希望される場合はご連絡下さい。

계재 화상·원사진의 사용이 희망되는 경우는 연락해 주세요.